

## 농(農)으로 돌아가라

# 연두농장 사람들의 농사 이야기

글 · 사진 황석선 stonesok@kdemo.or.kr



경기도 시흥, 초행길을 찾아 해매는 필자를 맞아 길거리에 배웅을 나온 이가 그의 일 거란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의 목소리가 도시에 사는 이들과는 좀 다른 기운 찬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농부의 품새가 온 몸에 배어있는 연두농장 변현단(45세) 대표가 나를 보자마자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가야한다고 재촉한다. 저 위 미산동 밭에 돼지감자를 심으러 가야 하는데 나를 기다리느라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10분 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연두농장 본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개조한 단독 주택이다. 우물이 있는 집을 오랜만에 보니 신기했다. 예전에는 먹었을 그 물, 이제는 오염이 돼서 식수로 사용하는 사용하질 못하고 밭에 주는 물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주택 뒤는 낮은 산이었는지 흔적만 남아있고 모두 연두농장이 농사짓는 땅으로 개간되었다.

“우리는 토종 씨앗만 심어요. 한 50여 종 되는데 토양 상태나 주변의 나무, 풀 등으로 인해서 땅의 질이 바뀌니까 그 땅과 잘 맞는 씨앗을 심어줘야 해요.”

변 대표가 차 안에서 호미를 꺼내 밭 이곳저곳을 뒤적이다. 밭마다 다른 종류의 씨앗을 심어놔서 그 씨앗의 잎이 자라 주변 것 까지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그런 걸 다 예상해서 심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잎이 긴 식물이 해를 가려 나중에 심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별 좋은 담벼락 아래가 좋겠다며 그곳에 돼지감자를 심는다.

“자, 내일 비 오기만을 기다립시다. 내일 비가 와야 요 돼지감자가 잘 자랄 수 있어요”

### 도시 사람들이여, 농사를 짓자

“도시 사람들이 텃밭을 많이 가꿀수록 우리가 먹고 살아요.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죠. 도시 사람들이 모두 경작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농촌으로 가서 공동체를 일구며 사는 거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또 밭을 일구고, 우리는 두서너발 앞서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 일이 제겐 사명 같아요”

연두농장은 지난 2005년 복지재단 복음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관에서 위탁 받아 변 대표가 자활영농사업단 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기반 없이 도시에서 밀려난 이들이 농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 생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農) 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변 대표의 생활사적 변화가



연두농장 변현단 대표

바탕이 되기도 했다.

“농사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농사란 사람을 경작하는 일이고 대안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을 경작하게 하고 삶의 철학과 방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취약 계층들을 위한 농사 교육센터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화 시켜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농부학교다. 농부학교는 텃밭분양을 한 이들에게 농사를 짓기 전 알아야 할 농사 방법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에는 텃밭 분양자들 외에도 농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 갈 예정이다.

연두농장은 귀농한 청년 1명을 포함, 변 대표 등 총 6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제 곧 시작하는 텃밭분양 때문에 남자들은 텃밭 면적의 구역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이내 밭으로 올라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텃밭 분양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1구좌 당 5평 기준이니 욕심 내지 않고 천천히 농사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 봐도 좋을 듯하다. 단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제조제나 농약, 화학비료, 비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배설물을 포함한 자연물질로 자재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밭 앞에 흙먼지가 묻은 비닐이 잔뜩 쌓여있다.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연두농장이 개간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을 사용하고 그 비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 땅을 속아내고 정 들여 가꿀 때 땅 속에서 끊임없이 끌려 나오는 비닐을 보면서 연두농장에서는 비닐하우스나 비닐을 연관하여 농사짓지 말자, 다짐했다고 한다. 비닐이라는 화학 제품이 결국

땅을 황폐화시키고 땅을 못 쓰게 버릴 수 있기 때문 이란다.

**농업 대안공동체를 꿈꾸며**

“반복해서 강조한 이야기지만 저희 연두농장에서 농(農)이란 결국 사람 농사거든요. 저희는 사람 농사와 땅 농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만 믿고 무작정…… 땅은 하는 만큼 결과를 줄 거라

고 믿어요. 여기 이 땅들은 저희 소유가 아니에요.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공 들여 맘 들여 땀 흘려 가꾼 땅을 언제고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 땅이든 아니든 땅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꾸고 만지면 되니까”

연두농장에서 경작한 농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장 배추다. 할머니들이 어릴 적 먹던 맛이라고 소문이 나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그 외에도 썸채, 감자, 토종오이, 토종가지, 갓끈동부, 열무, 무 등이다.

연두농장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이렇듯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과 텃밭 분양자들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이지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단, 건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의료가 제일 걱정이예요. 너무나 영망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생협이나 의료에 관한 문제 해결이 있어야 저희가 지향하는 농사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어요. 완성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혹은 지향하는 대안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저희 연두농장의 의미이기도 하구요.”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변 대표의 전화기에 요란스레 벨이 울렸다. 텃밭 분양을 하고 싶은 이가 지금 근처에서 연두농장을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 번 위치를 알려달라는 모양이다. 예의 초행길 낯선 이들을 위해 그가 또 씩씩하고 당차게 위치를 알려주고는 분양자를 맞을 준비를 한다.

분양이라, 지금 텃밭 분양을 하러 오는 이는 청약을 몇 백대 일에 해당하는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자기 생활의 안착을 하러 오는 심정일 터. 전화기 너머 들리는 상기된 목소리의 분양자는 길모퉁이에서 연두농장 변 대표를 단박에 알아볼 것이다. 내가 그를 단박에 알아본 것처럼…….

사회가 발달할수록 첨단 과학이 될수록 근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잃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지점인지, 경제가 피폐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귀농을 꿈꾸는 사람,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 텃밭분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카페 연두농장(<http://cafe.daum.net/nongnyu>)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변 대표가 돼지감자를 심고 있다.  
▼ 연두농장 사람들이 땅을 속아내며 찾아낸 비닐들. 땅을 죽이는 비닐만 없애도 농산물은 좀 더 싱싱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텃밭 분양을 위해 구획을 정리하고 있는 연두농장 사람들.

